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전체 모든 순례지들 중에서 아부가 가장 위대한 순례지라는 비밀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어라. 신이 친히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였다.

**질문:** 사람들이 만일 어떤 한 측면을 이해한다면 여기가 군중들로 가득해지겠느냐?

**대답:** 아버지가 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라자 요가를 다시 한 번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그가 편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할 주된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이때에 여기 아부에 와 있으면서 세계에 평화를 세우고 있다. 이것의 살아 있지 않은 기념비가 딜왈라 사원이다. 아디 데브가 살아 있는 형태로 이곳에 앉아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딜왈라 사원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부는 찬양될 것이고 이곳은 군중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부의 이름이 만일 유명해진다면 많은 이들이 이리로 올 것이다.

움 산티. 자녀들은 요가를 배운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들 스스로 이것을 배운다. 아버지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끼리 서로 가르친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들을 가르치니, 낮과 밤의 차이가 난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기억하므로 별로 많이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영혼의식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기서 너희는 아주 빨리 영혼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이 많다. 시브 바바는 우리들에게 봉사하며 이르고 있다.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여기 있는 이 사람 안에 현존하는 아버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시브 바바가 브라마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믿음마저 갖지 않은 자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완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며 그들 자신을 크나큰 힘으로 채우고 또 봉사도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세계 전체가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가와 또 지식에서도 뭔가 결여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만 혼습하지는 못한다. 만일 이것을 혼습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들도 역시 이것을 혼습하도록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계속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세상에 언제 평화가 있었으며 그 평화가 어떻게 왔는지 그들은 모른다. 어떤 유형의 평화가 있었든,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유형의 평화다. 세계에 지금 평화와 행복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오직 너희 자녀들뿐이다. 아버지가 이제 왔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딜왈라 사원인 것을 좀 보아라. 아디 데브가 여기에 있고, 또 세계의 저 위에는 평화의 장면도 역시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국제회의 등에 초빙할 때마다 너희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세계에 어떤 유형의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에서는 세계에 평화가 있었다. 딜왈라 사원에는 그것의 정확한 기념비가 있다. 세계에 평화의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락쉬미와 나라얀의 그림을 봐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돌 조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희는 여러분에게, 첫째로는 세상에서 평화의 본보기는 락쉬미와 나라얀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의 왕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딜왈라 사원에 가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단지 그것의 모형만 보일 테니, 아부에 와서 그것을 보십시오“라고. 이 사원의 기념비를 지은 자들은 이것을 모르면서도 그것에 딜왈라 사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또 거기에 아디 데브를 앉혀 놓고, 그 위 천장에는 천국을 묘사했다.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반면, 너희들은 살아 있는 형태로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딜왈라 사원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군중이 얼마나 많을지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사람들은 혼란해하며 ”이게 뭡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노력이 많이 든다. 자녀들 중에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신의 문에서, 바로 그의 옆에 앉아있는 자들조차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다 전시회를 보려고 온다. 종파와 분파가 참으로 많다. 바이슈나브 종교에 속하는 자들도 역시 있다. 사람들은 바이슈나브 종교라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크리슈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크리슈나의 왕국은 낙원, 천국이라고도 불린다. 바바가 이미 알려주었듯이, 어디서 초청을 받든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세계에 언제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세계의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여기에서이기 때문에 이 아부는 전체 모든 순례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부 산에 있는 이것의 예를 보기를 원한다면 딜왈라 사원에 가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평화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은 무척 행복해할 것이다. 심지어 자이나교도들조차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해할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아버지 프라자피타 브라마가 아디 데브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설명하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는 브라마 쿠마리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은 아부를 아주 높이 칭송하며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부는 모든 순례지 중에서 최고의 순례지다. 너희들은 심지어 봄베이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다: 아부 산은 모든 순례지들 중에서 가장 큰 순례지인데, 왜냐하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아부에 와서 천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떻

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모형과 아디 데브의 모델이 아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평화가 세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에서는 세상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본래의 영원한 신인종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 왕조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부에서 그들 왕국을 모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낡고 불순한 세상이다. 이것을 새로운 세계라고 부르는 앓을 것이다. 새 세계의 모형이 여기에 있다. 새로운 세계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를 알므로 그들에게 알려준다. 모든 이가 다 그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설명해준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탓에 남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천국의 왕국이 저 위에 있고, 아담이라고도 불리는 아디 데브가 그 아래 앉아 있다. 그는 고조부다. 너희들이 이 칭송을 들려주면 그들은 행복해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다.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러분은 크리스나를 칭송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크리스나는 낙원의 황제,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의 모형을 보기를 원한다면 아부에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낙원의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가장 상서로운 합류시대에 어떻게 라자 요가를 공부했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주인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형도 역시 보여주어라. 또 합류시대의 타파샤도 보여주어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념비를 보여주어라: 또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을 세웠던 시브 바바의 그림도 있고, 또 암바의 사원도 역시 있습니다. 암바는 팔을 10개, 20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팔을 단 2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아부에 있는 낙원도 보여주어라: 아버지가 와서 세계에 천국을 만들고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부였습니다. 아부는 전체 모든 순례지들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순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 속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 뿐입니다.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부에서 그분의 기념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아부를 아주 많이 칭송할 수 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기념비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누가 고대 바라트의 라자 요가를 가르쳤으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말해라. 아부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낙원의 모형도 역시 천장에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너희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관광객들도 역시 배회하며 돌아다닌다. 그들도 역시 와서 이해하게 해줘야 한다. 만일 너희들의 아부라는 이름이 유명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아부가 매우 유명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고 누가 너희에게 묻거나 국제회의 등에 너희를 초청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여러분은 세계에 언제 평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계에 어떻게 평화가 있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모형들 등도 역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 모형들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부는 전체의 모든 순례지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순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리 와서 세계에 평화를 만들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런 것들을 모른다. 너희들 중에도 역시 등수가 있다. 비록 상설전시관 등을 돌보는 대(大) 마하라티들이 있지만, 바바는 그들이 모든 이에게 명료하게 설명하는지 여부를 다 읽는다. 바바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해한다. 그는 모든 이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 있고, 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자가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안다. 만약 일부 어떤 이들이 지금 이때에 죽는다면, 그들은 전혀 아무런 지위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기억의 순례에 요구되는 노력을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설명해서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여기 있는 기념비는 영원히 존재한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내가 여기 있고, 아디 데브가 여기 있고, 천국도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아부에 대한 찬양이 많을 것이다. 아부가 어떻게 될지, 너희들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쿠르크셰트라를 다시 한 번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수백만 루피를 쓴다. 그곳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인다. 악취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마라! 참으로 많은 군중들이 그리로 몰려든다. 신봉자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강에 빠졌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슬픔이다. 불시의 죽음이 계속된다. 그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자는 무척 지각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지식을 넣어줘서 그것이 너희의 지각에 자리잡게 한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새 세계를 순회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낡은 세계는 이제 끝나간다. 사람들은 아직도 4만 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사이클 전체가 5천 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낡은 세계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 이것은 극심한 어둠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쿵바카르나의 잠에 빠져 자고 있다. 쿵바카르나는 반 사이클 동안 잠을 잤고, 반 사이클 동안은 깨어있었다. 너희들이 쿵바카르나였다. 이 연극은 아주 경이롭다. 모든 이가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일부는 그저 믿음만 갖고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 모두가 어딘가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따라간

다. 그들에게 말해라: 우리는 천국을 세우고 있는 시브 바바에게 갈 것입니다. 무한한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무한한 유산을 받는다. 그게 전부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시브 바바, 우리는 당신 자녀들이니 반드시 당신에게서 유산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이 탄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보아라! 신봉의 길에서는 행복이 일시적이다. 여기서는 무한한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인 너희들은 안다. 저것은 그들이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일시적인 행복이다. 여기서 너희는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21생 동안의 유산을 받았다. 그러나 비전 등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전을 보아야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면 바바는 그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 가서 아주 열렬하게 신봉을 행해라. 너희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어쩌면 너희가 다음 생에 잘 될 것이다. 헌신적인 신봉자는 좋은 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독특한 것이다. 이 낡은 세계는 변하고 있다. 아버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분이다. 기념비가 여기 있다. 사원은 아주 오래되었다. 뭔가 부서지는 경우엔 그것이 고쳐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래의 아름다움은 상실된다. 그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자녀들아, 너희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공부의 문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투라에 만들어 놓았던 마두반, 쿤즈 갈리 등의 모형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고프들, 고퍼들의 놀이들도 없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앉아서 각각의 요점을 아주 잘 설명해라. 국제회의에서도 역시 요가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칼에 힘이 없으면 화살은 과녁을 맞히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만일 지고의 영혼이 편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믿는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라자 요가를 가르쳤다는 것과 그가 지금 이때에도 역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된 것 한 가지를 그들이 이해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추하게 된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이것은 큰 실수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탄 배가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는데, 이 공부는 너희들의 소득의 원천이다. 너희들에게 인간에서 신인들로 바뀌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직접 온다. 너희들은 반드시 순수해져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신성한 미덕들도 역시 훈습해야 한다. 그것은 등수대로다. 센터들 모두가 등수대로다. 왕국 전체가 세워지고 있다. 이것은 이모네 집에 가는 것과 같지 않다! 황금시대가 천국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나 만일 그곳에서 왕국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신인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럴 경우엔 아부에 와라. 천장에 왕국을 그려놓은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아즈메르에 천국의 모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판 얘기다. 아디 데브도 역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천국을 세운 분과 그것이 세워진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념비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딜왈라 사원”이라는 이름을 글로 쓸 수 없다. 그들 스스로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관해서조차 어떻게 하는지 좀 보아라! 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육체 의식을 갖고 있다. 너희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영혼의식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노력해야 한다. 너희의 행운에 있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노력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가 만일 실패한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던 내 운이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 실천 요지:

1. 영혼의식이 되려고 전력을 다해 노력해라. “너희 복에 있는 것이면 뭐든 받겠지”라고는 생각지 마라. 지각 있게 되어라.
2. 지식을 듣고 그것의 화신이 되어라. 기억의 힘을 훈습한 다음에 봉사해라. 전체 모든 순례지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순례지인 아부에 대한 칭송을 모든 이에게 들려줘라.

**축 복:** 낭비적인 생각, 말, 행동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성스러운 백조가 되어라.

거룩한 백조란 낭비적인 생각, 말, 행동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자는 뜻인데, 왜냐하면 낭비는 돌과 같고, 돌은 무가치한 반면, 보석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행위들을 행하는 동안에 그저,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통치력과 통제력을 지닌 라즈 요기 영혼들이고 낭비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와 있는 형태로 가져라. 이 인식이 너희를 거룩한 백조로 만들 것이다.

**슬로건:** 자기를 몸이라는 건물 속의 손님이라 여기는 자들만이 애착에서 자유로이 머물 수 있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